

## 패션에 나타난 장애의 포용 - 다운증후군 모델 매들린 스투어트(Madeline Stuart)의 사례분석 -

정수진·임은혁\*

배화여자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요약

본 연구는 최근 패션산업에서 다양성 이슈와 함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장애의 포용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해 장애학 연구를 바탕으로 패션산업의 장애인 포용에 대한 고찰과 함께 최근 인스타그램에 나타나는 장애의 인식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빅데이터 연구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카이브 분석과 관련 기사 분석을 병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다운증후군 모델 매들린 스투어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들린 스투어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장애의 포용을 의미하는 ‘diversity’, ‘inclusion’, 등의 해시태그를 공유하여 장애인 인식변화를 도모하였다. 둘째, 다운증후군 모델 매들린 스투어트는 외양 꾸미기를 통해 다운증후군의 한계를 극복하고 패션모델이 되어가는 과정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을 통한 장애인 포용을 위한 노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셋째, 최초의 다운증후군 모델로서 주류 패션뿐만 아니라 뉴스와 신문 등에서 매들린 스투어를 주목했으며, 스투어트는 다운증후군을 대표하는 액티비스트이자 인플루언서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본고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5년부터 시작된 다운증후군 모델 매들린 스투어트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분석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장애인 포용을 위한 노력의 전개 양상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최근 패션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포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장애, 다양성, 포용, 다운증후군 모델, 매들린 스투어트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임은혁, [chyim@skku.edu](mailto:chyim@skku.edu)

접수일: 2023년 5월 8일, 수정논문접수일: 2023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31일

## I. 서론

오랫동안 패션산업에서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신체를 정상의 신체(normal body)로 간주하였다. 패션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의류는 대부분 비장애인을 위한 제품이고, 장애인을 위한 의류나 제품개발 과정에서의 그들의 참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주류 패션에서 장애는 감추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고, 장애가 있는 신체는 소외되었다. 하지만 최근 패션산업에서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ve)이 주목받으면서, 그동안 패션계의 주변부로 존재했던 장애(disability)의 포용 또한 관심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엄격한 신체의 보수성을 드러냈던 패션산업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최근 2023년 5월호 영국 보그에는 장애인 액티비스트들이 표지 모델과 화보에 등장하였다. 같은 해 2월 런던컬렉션의 시니드 오 뒤어(Sinead O'Dwyer)의 런웨이에서는 휠체어를 탄 나디라 콰지(Naadirah Qazi)가, 2022년 모스키노(Moschino) 컬렉션에서는 휠체어에 의지하는 트랜스젠더 장애인 아론 로즈 필립(Aron Rose Philip)이 각각 등장하였다. 2020년 구찌 뷰티(Gucci Beauty)에서는 최초 다운중후군 모델 엘리 골드스타인(Ellie Goldstein)이 광고모델로 발탁되었고, 백반증 모델 위니 할로우(Winnie Harlow)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애를 가진 모델들이 런웨이와 패션 화보, 광고 등에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 타미 힐피거(Tommy Hilfger)를 비롯한 여러 패션 브랜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의류제품 라인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패션계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21년 다운중후군 청년 조지 웹스터(George Webster)가 BBC의 어린이 채널 진행자로 활동하며 화제가 되었고(BBC News, 2021), 국내에서는 2022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다운중후군 배우 정은혜가 직접 다운중후군 배역을 연기하였으며, 같은 해 자페스

팩트럼 장애가 있는 여주인공의 일화를 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들 드라마는 그동안 주변부에 있던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고취하여 찬사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미의 보수성을 고수하던 마텔사(Mattel, Inc)는 2016년부터 다양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신체 사이즈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바비(B Barbie)에 이어 최근 2023년 4월 다운중후군, 백반증, 의족, 보청기를 착용한 바비를 출시해 다양한 신체의 포용으로 주목받았다(Dempsey, 2023).

한편 개방, 참여, 공유를 기반으로 등장한 인스타그램(Instagram)은 패션계에서 소외된 비주류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의 공간(alternative space)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패션산업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장애, 플러스 사이즈(plus-size), 시니어(senior), 유색인종(non-white people), 논 바이너리 젠더(non-binary gender) 등 다양한 신체를 상징하는 비주류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스타일, 일상, 자기 관리 등을 공유하며 사회적 고정관념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인스타그램을 통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중심으로 전개된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The body positivity movement)'은 패션산업의 다양한 신체를 상징하는 모델의 활동을 촉발하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장애, 인종, 시니어, 논 바이너리 젠더 등 그동안 주류 패션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신체의 수용으로 확산하였다(Chung, 2022). 요컨대, 소셜미디어는 그동안 패션 및 사회에서 소외된 비주류가 주류 패션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으며, 장애인의 인식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와 패션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장애의 포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장애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휠체어 장애 아동을 위한 유

니버설 패션 디자인연구(Bac, 2022), 족부질환(Kim & Huh, 2020)과 지체 장애인(Kim & Huh, 2019)을 위한 신발 연구, 지적 장애 치유 목적의 디자인 개발 연구(Jang & Ha, 2020)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개발 연구들로, 최근 패션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의 포용과 관련된 연구는 Chung(2022), Chung and Yim(2020)의 패션 액티비즘 연구에서 일부 다루어진바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연구는 최근 패션계에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포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한 액티비스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학(disability studies)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패션과 장애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수적인 패션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장애를 포용하였는지 그 흐름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대안적 공간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애인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초의 다운중후군 모델 매들린 스투어트(Madeline Stuart)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패션산업과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장애의 포용을 위한 노력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은 학계뿐 아니라 패션산업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장애에 대한 고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구분의 시작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 200년 전만 해도 ‘장애인(disabled people)’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Kim, 201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짓기는

근대 이후 식민주의와 산업화시대가 시작되면서 처음 나타났다. 근대 이후 장애인은 이방인으로 다루어지고, 사회에서 비가시적 존재로서 동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들과 비슷한 위상을 지녔다(Kim, 2019). 장애에 대한 구별 짓기는 경제적 참여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몸’과 경제적 참여가 불가능한 ‘불구의 몸’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되어,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 of disability)로 변화하였다. 1960년대까지 서구에서 지배적이었던 개인적 모델은 개인적인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Giddens & Sutton, 2017/2020). 다시 말해 개인적 모델에서 장애는 장애가 있는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견해다. 장애의 개인적 모델에서 신체적 비정상성은 장애 또는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개인적 모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진단, 치유 및 재활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전문가들이 권위자로 여겨졌다(Giddens & Sutton, 2017/2018). 장애를 개인의 불행이라고 바라보는 개인적 모델은 1960년대 말에 시작해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에게 비판받기 시작하였다(Giddens & Sutton, 2017/2020). 이후 장애의 개인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적, 의학적 이슈가 아닌 정치적 이슈로 보는 대안적 관점인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로 발전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장애 연구가 장애학(disability studies)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사회적 억압이 아닌 장애인의 해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의 밀접 관계가 있다고 보는 태도를 취한다. 즉 사회적 모델은 장애가 개인적으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사회적 모델을 주장한 이론가들

은 장애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문화적 장벽과 장애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영향을 받은 이 학자들은 장애에 대한 역사적 유물론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Giddens & Sutton, 2017/2018). 그 중 초기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주장한 대표적 이론가 중 한 명인 마이크 올리버(Mike Oliver)는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많았는데, 특히 산업혁명 동안 자본주의 공장들이 개별 임금노동에 기초한 고용을 시작하면서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가혹한 재제와 제도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Oliver, 1984).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장애를 억압의 결과로 재정의하고 장애인들이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76년 반(反) 격리 장애인 연합(Union of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UPLAS)은 「장애의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 1976」을 발표하면서, 손상과 장애를 구분 지어 설명하였다. UPLAS에 따르면, 손상은 개인의 생의학적 특성으로 비신체적, 감각기관 및 지적 손상 유형을 포함한다(UPLAS, 1976). 반면 장애는 신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고려가 적거나 없어서 그들이 주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배제하는 현대사회 조직에 의해 야기된 활동의 불리함이나 제약으로 정의하였다(UPLAS, 1976).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세계보건기구(WHO)가 손상, 장애, 핸디캡에 대한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에서 장애의 정의를 정립하였다. ICIDH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을 넘어서는 이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Giddens & Sutton,

2017/2020).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 존재하면 그 사람은 손상으로 인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ility)에 놓이게 되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놓이게 된다는 내용을 함의한다.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장애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ICIDH의 정의를 준거로 하고 있다(Kim, 2019).

1980년대 말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들의 손상은 인정하지만, 손상에 따른 고통스럽고 불편한 경험 및 장애에 따른 사회적 낙인을 소홀히 한다는 평을 받았고, 의료사회학자들이 사회적 모델의 손상과 장애의 구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모델은 거부되고 장애 연구와 주류 사회학에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적 모델에 도전할 만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온전한 참여를 위한 사회적 장벽 제거에 중점을 둔 사회적 모델을 장애인들이 수용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Giddens & Sutton, 2017/2020),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거동 불능으로 보는 개인적 모델이 장애가 억압의 결과라는 사회적 모델로 대체되었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해방을 중요시한다.

## 2. 패션과 장애

패션은 가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개인의 정체성과 취향 그리고 시대를 반영한다. 이러한 패션은 특정한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고, 개인의 신체와 사회적 외모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의복의 조합과 신체장식에 영향을 미친다(Craik, 1993/2001). 개인은 패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개인의 환상을 패션을 통하여 표현한다.

한편 이제까지 패션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서구 중심적인 것으로, 백인의 피부, 날씬함, 젊음 등을 아름다움으로 규정하는 미의 보수성을 고수해 왔고(Chung, 2022), 소비자들에게 패션을 통한 환상을 전파했다. 이렇듯, 패션은 그 시대의 이상향을 반영해왔는데, 특히 사이즈, 인종, 나이, 계급, 장애의 배제 과정을 통해 미를 규정하고(Craig, 2002),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주류 패션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들었으며, 이들을 위한 의류제품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장애는 감추어져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주류 패션 디자이너들은 날씬하고 걸을 수 있는 정상의 신체를 위한 디자인을 해왔다(Carbone, 2012). 제품, 건축 등의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 일찍이 장애인을 위한 연구 및 디자인을 선보였지만, 럭셔리 브랜드를 위시한 패션산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을 다루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Barnard, 2014).

하지만 이러한 패션의 보수성은 1960년대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과 3차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Chung, 2022).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전통과 본질적으로 다른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사회, 문화 철학, 미술, 건축, 그리고 패션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에 등장한 3차 페미니즘 운동은 지금까지의 백인 여성 중심의 1, 2차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이분법적인 대립에 도전하는 운동으로,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문화적 배경 등에서의 정체성 차이에 주목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고 변화를 포용한다(Park & Ha, 2015). 3차 페미니즘은 과거 여성해방 운동에서 확대되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비주류의 장애인 계층을 포함하여 인종, 계급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의 문제까지 아우른다. 이러한 영향으로 패션산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패럴림픽(Paralympics)에 관한 관심 증대와 장애인 선수들을 통해 전달되는 희망적 메시지는 패

션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등 예술과 과학 분야에 영감을 주었다(Burton & Melkumova-Reynolds, 2020). 더불어 2000년대 등장한 소셜미디어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류 패션에 처음으로 장애인이 등장한 것은 스타일 매거진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Dazed and Confused) 1998년 9월호에 실린 에디토리얼인 「Fashion-Able?」이다. 해당 에디토리얼에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과 닉 나이트(Nick Knight)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에이미 멀린스(Aimee Mullins), 데이비드 툴리(David Toole), 캐서린 롱(Catherine Long) 등이 모델로 등장했다. 알렉산더 맥퀸과 닉 나이트는 장애인들과의 작업을 통해 사회의 엄격한 미의식에 대한 저항적 메시지와 함께 장애의 신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특히 양 무릎 아래를 절단한 장애인 미국 국가대표 육상선수 에이미 멀린스는 데이즈드 컨퓨즈드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였고(Figure 1), 다음 해 1999년 S/S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에 맥퀸이 디자인한 의족을 착용하고 모델로 등장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인터뷰를 통해 이는 사회의 기존 미의식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의 다리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Esculapio, 2009). 알렉산더 맥퀸의 의족은 이후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개최된 맥퀸의 회고전 'Savage Beauty'에 포함되었고, 최근까지도 현대패션의 중요한 디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후 2013년 닉 나이트는 다이 리스(Dai Rees), 나 오미 필머(Naomi Filmer), 우나 버크(Una Burke), 그리고 베소니 버논(Bethony Vernon) 등 런던에서 활동하는 패션디자이너들과 함께 장애인의 의족과 의수를 포함한 보철을 주제로 'Showcabinet: Prosthetics' 전시를 개최하였다(Turner, 2013). 이 전시는 차가운 보철에 미학적으로 접근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시도하였다. 이후 켈리 녹스(Kelly Knox), 샤홀리

에어스(Shaholly Ayers), 잭 아이어스(Jack Eyers) 등의 신체 장애인 모델과 다운증후군 모델 매들린 스텐버그 등이 런던, 밀라노, 뉴욕, 토론토 패션쇼에 등장하였다(Burton & Melkumova-Reynolds, 2020). 또한, 하지 장애인 모델 마마 캅스(Mama Cax), 아론 필립 로즈(Aron Filip Rose), 탄 나디라 콰지(Naadirah Qazi), 백반증 모델 위니 할로우(Winnie Harlow), 탄도 하포(Thando Hapo), 다운증후군 모델 메들린 스텐버그 등이 다수의 런웨이와 패션 화보 광고 등에 등장하였다. 2022 S/S 모스키노의 쇼에 백반증 모델로서 위니 할로우와 휠체어에 의존하는 트랜스젠더 여성 장애인 모델 아론 필립 로즈가 등장하여 주목받기도 하였다(Figure 2). <Figure 3>의 이미지는 2020년 구찌 뷰티가 보그 이탈리아 및 사진작가 데이비드 피디 하이드(David PD Hyde)와 협업한 작업으로 다운증후군 모델 엘리 골드스타인(Elle Goldstein)을 최초로 뷰티 광고모델로 기용했다. 이후 데이비드 피디 하이드는 2021년 보그 이탈리아와 ‘Inclusion Revolution’이라는 주제로 장애가 있는 모델과 논바이너리 젠더의 모델들과 사진 작업을 하였다. 하이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동안 연민의 대상이었던 장애인에 미학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Vogue Italia, 2021). 2023년 5월호 영국 보그는 ‘Reframing fashion: Dynamic, daring & disabled’이라는 주제로 다운증후

군 모델 엘리 골드스타인(Elle Goldstein), 105cm 단신 액티비스트 시네이드 버크(Sinéad Burke)(Figure 4),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배우 셀마 블레이어(Selma Blair), 수화 퍼포먼서 저스티나 마일스(Justina Miles), 트랜스젠더 여성 하지 장애인 아론 필립 로즈(Aron Rose Philip) 등의 5명의 장애인이 표지 모델이 되었다. 해당 이슈에는 패션, 예술, 스포츠계에서 활동하는 19명의 장애인이 에디토리얼의 모델로 등장하였다. 영국 보그 편집장이자, 유럽 보그의 에디토리얼 디렉터인 에드워드 에닌폴(Edward Eninful)은 인터뷰를 통하여,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는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불편함을 공감하고 패션산업과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Eninful, 2023). 더불어 2023년 5월호 영국 보그에서는 패션잡지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판이 출간되어 주목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패션에서의 장애의 포용은 알렉산더 맥퀸과 닉 나이트의 협업을 시작으로, 의식 있는 패션산업의 내부에 있는 에디터, 사진작가, 디자이너, 편집장 등의 작업을 통해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패션산업에서의 장애인의 포용은 어댑티브 의복(adaptive clothing)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캐나다 출신 디자이너 이지 카밀레리(Izzy Camilleri)는 어댑티브 의복 브랜드 IZ를 론칭하였는데, 이는



Figure 1. Fashion-Able?. From Knight. (1998). [https://www.dazedigital.com](https://www.dazeddigital.com)



Figure 2. Moschino Spring 2022. From Phelps. (2021). <https://www.vogue.com>



Figure 3. Elle Goldstein. From Weinstock. (2020). <https://www.vogue.com>



Figure 4. A new vanguard of disabled talent covers British Vogue's may 2023 issue. From Eninful. (2023). <https://www.vogue.uk>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브랜드로 실용성과 미적인 측면에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다(Kenny, 2012). 또한, 미국의 카렌 바워삭스(Karen Bowersox)는 2010년 다운증후군을 위한 의류 브랜드 바워삭스(Bowersox)를 시작하였는데, 카렌 바워삭스는 다운증후군 장애인인 딸을 키운 경험을 토대로 다운증후군 장애인들에게 맞는 핏과 중량의 의류를 제작하고 있다(Kenny, 2012). 이뿐만 아니라, 영국 출신 디자이너 소피 데 올리베이라 바라타(Sophie de Oliveira Barata)는 2011년 The Alternative Limb Project를 통해 금, 은, 상아, 세라믹 등의 다양한 소재로 패셔너블한 의족을 출시하였다. 또한, 2014년 뉴욕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오픈 스타일 랩(Open style lab)은 장애인을 위한 어댑티브 의류를 제작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류 패션 브랜드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2016년 타미 힐피거는 장애 이동을 위한 의류를 출시한 이후 이를 성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기능성 의류를 출시하고 있다. 국내 패션산업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삼성물산의 하티스트(Heartist)가 장애인을 위한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등장한 소셜미디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장애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감춰야 할 대상으로 간주 되었다(Barnard, 2014).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의 일상을 비롯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인스타그램에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중심으로 시작된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The body positivity movement)’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자는 의미를 내포하며, 플러스 사이즈에서 장애가 있는 신체까지 아우르며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장애는 추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미(natural beauty)로 인식되었다

(Molvar, 2021). 앞서 언급한, 장애인 모델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켈리 녹스, 샤홀리 에어스, 잭 아이어스, 마마 캅스, 아론 로즈 필립, 탄 나디라 콰지, 위니 할로우, 탄도 하포, 매들린 스튜어트 등의 모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자는 맥락에서 자신의 일상 및 스타일을 공유하며 장애인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는 장애인들의 일상은 장애인의 고충을 알려주는 동시에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장애인 모델로부터 비장애인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 인플루언서들은 모델을 꿈꾸지는 않아도 장애인으로서 패션과 스타일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패션에서의 장애의 포용은 런웨이 모델, 광고 및 에디토리얼로부터 시작되어 의식 있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으로 이어지면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애가 있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패션의 생산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패션산업에서도 장애를 포용하는 브랜드가 점차 늘어나고 어댑티브 의류 라인이나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일부 해외 패션스쿨 및 대학에서 장애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등 교육계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패션산업에서 장애의 포용은 장애를 감추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장애에 미학적으로 접근하며, 장애학에서 중요시하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해방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애 포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최초의 다운중후군 모델 매들린 스투어트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1996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난 스투어트는 다운중후군 최초의 모델로, 2015년 런웨이에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스투어트는 2015년 뉴욕 컬렉션에 등장 이후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 35.1만 명의 팔로워(2023년 3월 31일 검색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이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모델로는 매들린 스투어트를 비롯하여 백반중의 위니 할로우(@winnicharlow), 트랜스젠더이자 휠체어에 의존하는 아론 로즈 필립(@aaron\_philip) 등 다수가 있으나, 매들린 스투어트는 최초로 런웨이에 등장한 다운중후군 모델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패션모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이미지 등으로 공유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섰기에 연구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매들린 스투어트의 영향력은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보그(Vogue),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등의 패션잡지와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가디언(The Guardian) 등 일간지를 아우르는 매체에 등장하여 장애의 포용을 비롯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 계정(@madelinesmodelling)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매들린 스투어트의 계정생성일(2015년 5월 12일)로부터 2023년 4월 31일까지로 약 8년간의 데이터 1,718개를 분석하였다. 연구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 31일까지 약 3년간 수행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과 더불어 인스타그램 계정 아카이브를 분석

하는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웹에 존재하는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감성 및 의도 등을 분석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Huh & Lee, 2019). 텍스트마이닝은 게시글, 댓글 등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나타내는 정보를 맥락(context)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Jun & Seo, 2013).

본 연구 수행을 위한 텍스트마이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인스타로더(Instaloader)와 파이썬(Python)을 활용하여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 개설일 2015년 5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1일까지로 약 8년간의 데이터 1,718개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인스타그램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텍스트와 해시태그의 각각의 단어로 분류하는 토큰화 작업(word tokenization)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 전처리 단계에서 수집된 해시태그 키워드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정제하기 위한 어간 추출(stemming) 후, 불용어(stopword)를 제거하였는데, 수집된 해시태그는 자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단어의 원형을 보존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같은 뜻이 있되, 대소문자가 다르게 추출된 유사용어를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여 통일하였다. 네 번째, 해시태그의 빈도를 분석하여 키워드의 빈도수를 구조화하였고, 빈도수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는 콘텐츠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이용자들이 정보를 검색할 때 특정 해시태그로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한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Yang, 2022). 또한 해시태그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 간 참여를 유도하고 해시태그의 노출을 통해 정체성 표현과 함께 팔로워 수의 증가와 콘텐츠 노출 빈도 증가를 촉진한다(Kim & Chung, 2016). 이와 같은 해시태그의 유효성을 바

탕으로 매들린 스투어트가 공유하는 장애의 포용을 함의하는 해시태그에 내재된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 아카이브를 분석하고 관련 기사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카이브 분석에는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해시태그, 게시물, 댓글, 영상 등의 내용을 맥락적으로 분석하는 네트워크그래피(network graph)를 적용하였으며, 관련 기사를 함께 분석하였다.

#### IV.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장애의 포용

##### 1. 해시태그 공유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 개설일 2015년 5월 12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공유된 게시물 1,718개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장애인 포용을 위한 노력과 직접적 연관 있는 116개의 단어를 도출하였다. 매들린 스투어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포용과 함께 장애인 인식변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를 공유하였다.

매들린 스투어트의 해시태그 상위 빈도수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의미하는 ‘inclusion’, ‘diversity’,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breakingthemouldtour’, ‘downsyndrome’, ‘disability’, morealikethandifferent’, 그리고 장애인 모델로서 활동과 관련된 ‘nyfw’, ‘lovinglife’, ‘catwalk’, ‘runway’ 등으로 나타났다.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추출된 장애인 인식변화를 위한 해시태그 단어의 상위 빈도수 10개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해시태그 빈도수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는 <Figure 5>와 같이 도출되었다. 워드클라우드는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 그래프 내의 단어 크기를 제시하여, 키워드의 빈도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다. 매들린 스투어트 인스타그램 계정의 워드클라우드에서는 다양성을 의미하는 ‘diversity’, 포용을 의미하는 ‘inclusion’, 장애 인식개선을 의미하는 ‘breakingthemouldtour’ 등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매들린 스투어트의 인스타그램에서 도출된 장애인 포용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다음과 같이 그룹화하였다. 장애 및 그 포용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장애(disability)’로, 스폰서십, 광고 등 상업적 활동과 관련성 있는 단어는 ‘상업적 활동(commercial)’으로 그리고 TV, 저널, 잡지 등 주류 매체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주류 활동(mainstream)’ 등

Table 1. Madeline Stewart's top frequency hashtags on Instagram.

Rank	Word	Frequency
1	inclusion	199
2	diversity	192
3	breakingthemouldtour	131
4	downsyndrome	46
5	nyfw	34
6	lovinglife	21
7	catwalk	18
8	disability	18
9	morealikethandifferent	15
10	runway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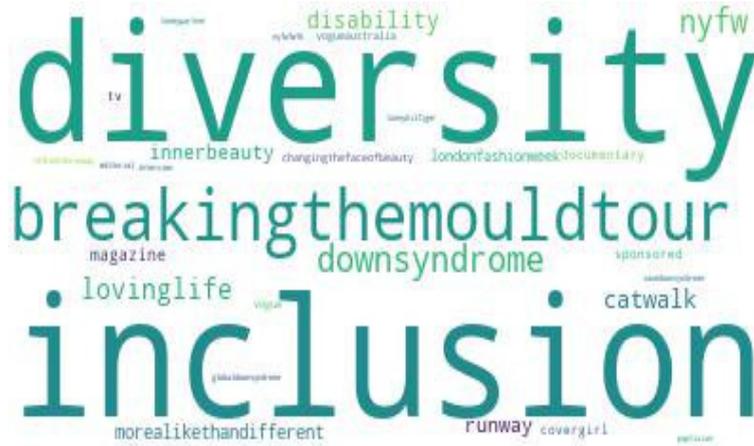


Figure 5. A wordcloud of Madeline Stewart's Instagram account.

Table 2. Madeline Stewart's Instagram hashtags grouping.

disability	inclusion, diversity, breakingthemouldtour, downsyndrome, lovinglife, disability, innerbeauty, morealikethandifferent, changingthefaceofbeauty, popivism, savedownsyndrome, GlobalDownSyndrome, downsyndromeofoundation, equality, FashionForInclusion, stayhealthy, EmbraceYourBeauty, loveinglife,
commercial	Sponsored, ad, tommypartner, tommyhilfigeradaptive, PowerOfPVH, WeArePVH, gerrardcosmetics, DieselHateCouture,
mainstream	nyfw, catwalk, runway, magazine, londonfashionweek, covergirl, documentary, tv, vogue, vogueaustralia, rethinktherunway, tommyhilfiger, interview, editorial, nyfw16, addidas, nyotamagazine, artheartsfashion, whomagazine, nyfw2020, fitnessmodel, metgala, milanfashionweek, diesel, fashionfreefromconfines, SS2016, embracebeautymagazine, teenvogue

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매들린 스튜어트의 장애 관련 해시태그의 연도별 추이와 그 외의 상업적 활동, 주류 패션에서의 활동 등의 해시태그의 연도별 변화 그래프는 <Figure 6>과 같다. <Figure 6>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2018년에 장애와 주류 패션을 의미하는 해시태그의 수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이 시기는 패션산업 전반에 장애를 비롯하여 다양성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던 시기로,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된 플러스 사이즈의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이 다양한 연령, 젠더, 인종 그리고 장애로 확산되어 주류 패션에 활발하게 등장한 시기이다. 당시 영국 보그 최초로 흑인 편집장 에드워드 에네폴이, 루이 비통(Louis Vuitton) 남성복 디렉터로 버질 아블로(Virgil Abloh)가 임명되는 등 패션산업에서 다양성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들린 스튜어트의 런웨이와 잡지화보, 뉴스 등 주류 매체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장애 관련 해시태그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다. 다시 말해, 초기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을 알리고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관련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데에 비해, 2019년 이후부터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해시태그 공유가 줄어드는 가운데, 마케팅 및 기업홍보 등 상업적 활동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시태그를 공유하는 양상을 보인다(Chung, 2022). 한편, 매들린 스튜어트의 인지도가 주류로 확대됨에 따라 상업적 활동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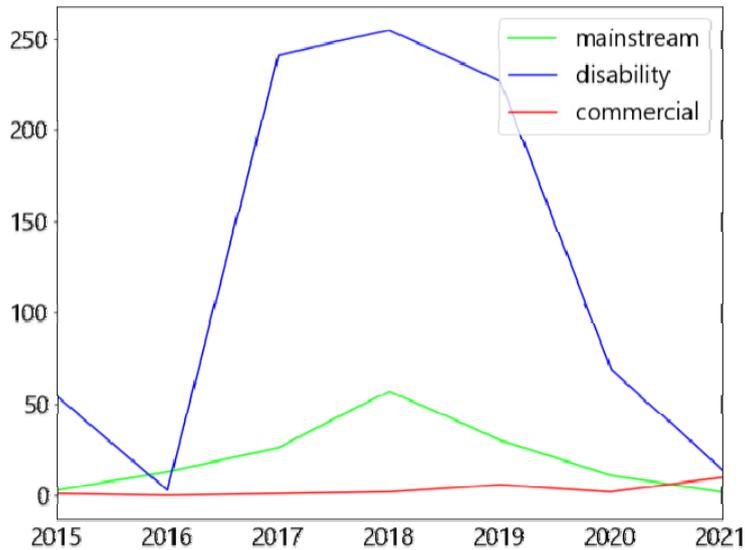


Figure 6. Year-over-year trend of hashtags via Madeline Stuart's Instagram account.

콘텐츠의 가시성을 높여주고, 계정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매들린 스튜어트는 장애와 포용, 다양성을 의미하는 해시태그로 장애를 포용과 다양성의 메시지로 표현하며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더불어 스튜어트는 주류 패션과 관련된 해시태그와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제품 홍보 및 광고를 위한 해시태그를 공유하면서 상업적 활동을 보이는데, 이는 장애인도 패션산업 및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인식변화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 2. 자기 관리 및 외양 꾸미기를 통한 장애 극복

매들린 스튜어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운증후군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운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인지 장애와 함께 특징적인 얼굴, 낮은 근육 긴장도와 작은 신장의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Barnard, 2014). 다운증후군 장애인은 납작한

얼굴에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가에 덧살이 있으며, 귀, 코, 입이 작고, 키가 작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짧다(Lee & Park, 2006). 매들린 스튜어트 등장 이전에는 미의 보수성을 고수하는 주류 패션 및 매체에서 다운증후군 모델을 찾기 어려웠다.

한편 의복 아이템의 조합과 신체장식은 신체와 사회적 외양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데, 신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용과 기획방법에 따라 능동적으로 구축된다(Craik, 1993/2001). 패션모델을 꿈꾸었던 다운증후군 매들린 스튜어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양 꾸미기를 통해 다운증후군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패션모델이 되는 과정을 공유하였다. 더불어 매들린 스튜어트는 패션산업에서의 장애인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전시하였다. 매들린 스튜어트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피트니스, 수영, 복싱, 승마, 댄스 등의 다양한 운동을 통해 신체가 변화되는 과정을 공유했다(Figure 7). 스튜어트는 평소 자기 관리를 위한 운동뿐만 아니라 수상스키, 골프, 농구,



Figure 7. Madeline Stuart at a gym.  
From Madelinesmodellng\_ (2018).  
<https://www.instagram.com>



Figure 8. Madeline Stuart at NYFW.  
From Madelinesmodellng\_ (2022a).  
<https://www.instagram.com>



Figure 9. Amnesia NYFW, 2019.  
From Madelinesmodellng\_ (2019).  
<https://www.instagram.com>

패러글라이딩 등의 레저 활동을 통하여 체중 감량에 성공하였고, 변화되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였다. 또한, 스튜어트는 화려한 메이크업 사진, 신체를 드러내는 비키니와 레깅스 차림의 스타일과 우아한 드레스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한 사진을 통해 패션화된 신체 이미지를 공유하였다. <Figure 8>과 <Figure 9>는 스튜어트가 2019년 뉴욕 컬렉션에 참가했을 때의 이미지로, 메이크업과 모델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다운증후군 매들린 스튜어트는 패션시스템에 진입함으로써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함께 패션화되어 변화된 외양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여주었다. 더불어 그녀는 성장 과정 사진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병원에서 지냈던 일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였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장애가 있는 신체 이미지와 장애인의 일상이 매들린 스튜어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로워들에게 공유되었다. 팔로워들은 댓글과 ‘좋아요’ 등으로 스튜어트를 응원하며 매들린 스튜어트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션화되어 변화된 스튜어트의 외양은 다운증후군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며, 인스타그램에 공유되는 스튜어트의 이미지는 다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는 다운증후군에 대한 이해 도모와 함께 장애의 포용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 3. 다운증후군 모델로서 다양한 활동 전개: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희망적 메시지 전달

인스타그램에 공유된 매들린 스튜어트의 꾸준한 자기 관리와 모델로서의 활동사진은 많은 팔로워의 응원과 지지를 받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매들린 스튜어트의 활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을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형성되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은 신뢰감을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기업들은 인플루언서의 많은 팔로워를 잠재적 고객으로 판단하여 후원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한다(Chung, 2022). 스튜어트의 활동은 호주에서 먼저 유명해져 2015년부터 패션잡지를 비롯하여 TV 쇼 및 뉴스에도 등장했다. 모델로서의 외양 꾸미기를 보여주었던 스튜어트는 제라드 코스메틱사(Gerard Cosmetic)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기도 하였으며, 가방 브랜드 에버마야(Evermaya)는 스튜어트로부터 영감을 받은 백을 론칭하고, 액티비티 웨어 브랜드 매니페스타(Manifesta)는 스튜어트와 모델 계약을 맺었다. 2015년 7월 2일 매들린 스튜어트는 매니페스타의 액티비티 웨어를 착용한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매들린 스튜어트의 영향력은 호주뿐만 아니라 뉴욕 컬렉션으로 확장되었다. 스튜어트는 2015년 뉴욕 컬렉션에 최초의 다운증후군 모델로서, Nonie, House of Byfield, Lulu et Gigi 외 5개 컬렉션에 등장하였다(Feitelberg, 2018).



Figure 10. Maddy the model.  
From Madelinesmodellling\_ (2020).  
<https://www.instagram.com>



Figure 11. Skin care for advertising.  
From Madelinesmodellling\_ (2022b).  
<https://www.instagram.com>



Figure 12. #beyourownboss.  
From Madelinesmodellling\_ (2023).  
<https://www.instagram.com>

다운증후군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런웨이에 등장한 스텐튼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패션지와 일간지들이 스텐튼의 기사를 다루었다. 그 후 매들린 스텐튼은 런던, 파리, 두바이, 러시아 등의 컬렉션과 메르세데스 벤츠 차이나 패션 위크를 비롯하여 잡지 표지 및 화보에도 등장하였다. 스텐튼은 런웨이에 오르기 전 리허설 사진, 런웨이에서의 활동사진 등을 공유하였고, 팔로워들은 스텐튼을 지지하는 메시지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2019년에는 스텐튼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 ‘매들린, 런웨이 위의 다운증후군 소녀 (Maddy the Model, 2020)’이 제작되었다(Figure 10). 스텐튼은 자신의 영화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였고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과 지원을 받았다. 매들린 스텐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제품을 광고하며 상업적 활동도 하고 있다. <Figure 11>은 트리니 런던(Trinny London)의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장면의 일부로 제품 사용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Figure 12>에서 스텐튼은 2023년 1월 보스(Boss)의 캠페인 #beyourownboss에 동참하여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매들린 스텐튼의 영향력은 패션산업을 넘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확장되었다. 스텐튼은 호주 장애인 협회 홍보대사로 활동하였고, 2015, 2016, 2017년 자랑스러운 호주인으로 지명되었다. 또한, 2017년 포브스(Forbes)에서 패션계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매들린 스텐튼을

선정하였다. 매들린 스텐튼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다운증후군뿐만 아니라 백반증, 휠체어를 탄 장애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주류 패션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매들린 스텐튼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일상을 비롯하여 주류 매체에 등장과 등장한 모습과 패션산업에서 모델로서의 활동하는 이미지는 오래전부터 장애인들에게 낙인되었던 정상적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일반인처럼 온전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도 어느 정도 사회 및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매들린 스텐튼의 활동은 패션산업뿐만 아니라 호주 장애인 협회 등 다양한 대외 활동으로 이어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스텐튼 이외에도 여러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스텐튼의 활동은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에서 나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최근 패션산업과 사회에서 다양성 이슈와 함께 장애의 포용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미의 보수성을 유지하던 런웨이 및 패션 화보에서 장애를 가진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장애에 미학적인

로 접근하는 디자이너 및 사진작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미적인 어댑티브 의복 라인 및 브랜드도 나타났다. 한편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고충과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꾀한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에 대해 고찰을 바탕으로 패션산업에서 나타나는 장애의 포용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에 앞장선 다운증후군 모델 매들린 스텐어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들린 스텐어트는 인스타그램에 ‘inclusion’, ‘diversity’, ‘downsyndrome’, ‘disability’, ‘morealikehandifferent’ 등의 해시태그를 공유함으로써 장애를 포용과 다양성의 대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모델로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nyfw’, ‘catwalk’, ‘runway’ 등을 통해 사회가 가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하였다.

둘째, 매들린 스텐어트는 외양 꾸미기를 통해 다운증후군이 가진 외양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미지를 공유하였다. 매들린 스텐어트는 꾸준한 자기 관리를 하여 변화하는 이미지와 함께 메이크업과 의복을 통한 외양 가꾸기로 모델이 되는 모습을 공유한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셋째, 매들린 스텐어트는 최초의 다운증후군 모델로서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스텐어트는 최초의 다운증후군 모델로 컬렉션에 등장한 이후 광고와 에디토리얼에도 모델로 기용되었고 다큐멘터리 필름의 주인공이 되었다. 매들린 스텐어트는 수많은 팔로워를 바탕으로 제품을 협찬받거나 홍보하고 있다. 스텐어트의 영향력은 패션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부상한 패션산업에서의 포용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최초의 다운증후군 모델 매들

린 스텐어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분석함으로써 장애 포용을 위한 노력과 양상을 파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현재 장애를 다루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장애를 억압이 아닌 해방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패션산업에서는 광고와 에디토리얼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에서뿐 아니라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어댑티브 의복을 통해 장애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부 의식있는 디자이너와 사진작가 등의 패션산업의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면, 소셜미디어 등장 이후에는 장애인이 직접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및 포용을 위해 액티비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산업에 나타난 장애의 포용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애의 인식변화를 고취하는 움직임이 해하고 그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 모델이라는 한 인물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갖는다. 후속 연구로 다양한 플랫폼에 나타난 다양한 장애인 인플루언서의 활동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장애의 포용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Bae, J. (2022). *Study on development of universal fashion design for handicapped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Yongin.
- Barnard, M. (2014). *Fashion theory: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 BBC News. (2021, September 20). CBeebies: Channel appoints George Webster as new host. *bbc.com*. Retrieved March 20, 2023, from <https://www.bbc.com/news/uk-england-leeds-58632649>
- Burton, L., & Melkumova-Reynolds, J. (2020). "My leg is a giant stiletto heel": Fashioning the prosthetised body. In Barnard, M. (Ed.), *Fashion theory: A reader* (pp. 447-449). New York: Routledge.
- Carbone, C. (2012). Downs designs: Clothing need for down

- syndrome. In von Busch, O. (Ed.), *Just fashion: Critical cases on social justice in fashion* (p. 111). CA: Selfpassage.
- Chung, S. (2022). *Fashion activism on social media: Focused on d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Chung, S. J., & Yim, E. H. (2020). Fashion activism in social media: Deconstructing the ideal beauty. *Journal of Fashion Design, 20*(2), 55-72. doi:10.18652/2020.20.2.4
- Craig, M. L. (2002). *Ain't I a beauty queen?: Black women, beauty, and the politics of r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aik, J. (2001). *The face of fashion* (Chung, I. H., & Ham, Y. J., & Jung, S. J., & Kim, K. W., Trans.). Seoul: Prunsel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Dempsey, J. (2023, April 25). Barbie with Down's syndrome on sale after 'real women' criticism. *BBC*. Retrieved May 1, 2023, from <https://www.bbc.com/news/business-65388131>
- Enninfu, E. (2023, April 20). A new vanguard of disabled talent covers British Vogue's may 2023 issue. *vogue.uk*. Retrieved May 1, 2023, from <https://www.vogue.co.uk/article/british-vogue-may-2023-editors-letter>
- Esculapio, A. (2009). Legs by Mcqueen: Amimee Mullins' prosthetic fashion. In von Busch, O. (Ed.), *Just fashion: Critical cases on social justice in fashion* (p. 135). CA: Selfpassage.
- Feitelberg, R. (2018, September 11). Madeline Stuart, first NYFW runway model with down's syndrome, looks to role beyond fashion. *wwd.com*.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s://wwd.com/feature/madeline-stuart-first-nyfw-runway-model-with-downs-syndrome-looks-to-role-beyond-fashion-1202801734/>
- Giddens, A., & Sutton, P. (2018). *Sociology* (Kim, M. S., Kim, Y. H., Park, G. S., Song, H. G., Shin, K. Y., Yoo, H. J., & Chung, S. H., Trans.). Seoul: Eulyoo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2017)
- Giddens, A., & Sutton, P. (2020). *Key concepts in sociology* (Kim, B. S., Trans.). Paju: Dongnyok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2017)
- Huh, J., & Lee, E.-J. (2019). Analysis of fashion brand evaluation using big data: Focusing on Gucci br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9*(9), 38-51. doi:10.7233/jksc.2019.69.6.038
- Jang, S. Y., & Ha, J. (2020). A study on fashion design to heal psychiatric disorders: Focused on weighted jackets for children. *Journal of Fashion Design, 20*(2), 73-86. doi:10.18652/2020.20.2.5
- Jun, C., & Seo, I. W. (2013). Analyzing the bigdata for practical using into technology marketing: Focusing on the potential buyer extraction.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21*(2), 181-203.
- Kenny, L.-J. (2012). *Dressing justly: Sit up for your rights*. In von Busch, O. (Ed.), *Just fashion: Critical cases on social justice in fashion* (p. 115). CA: SelfPassage.
- Kim, D. H. (2019). *장애/학의 도전* [Challenge of disability studies]. Paju: Maybooks05.
- Kim, J., & Chung, H. (2016). An investigation on the unexpected usages of hashtags in Instagram. *Design Convergence Study, 15*(2), 135-152.
- Kim, N. H., & Huh, J. S. (2019). A study on the type of orthopedic shoe for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Focused on foot disorders. *Journal of Fashion Design, 19*(1), 165-178. doi:10.18652/2019.19.1.10
- Kim, N. H., & Huh, J. S. (2020). Design characteristic of orthopedic shoe product for ameliorating disorder of foot disease. *Journal of Fashion Design, 20*(1), 17-33. doi:10.18652/2020.20.1.2
- Knight, N. (1998, September 7). Fashion able?. *Dazed.com*. Retrieved March 20, 2023, from <https://www.dazeddigital.com/fashion/gallery/20297/0/disability-in-fashion>
- Lee, S., & Park, S. (2006). *특수아동교육*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in inclusive settings]. Seoul: Hakjisa.
- Madelinesmodelling\_. (2018, February 5). Madeline Stuart in gym. *instagram.com*.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s://www.instagram.com/p/Bey77b\\_B7K-/?img\\_index=1](https://www.instagram.com/p/Bey77b_B7K-/?img_index=1)
- Madelinesmodelling\_. (2019, September 14). Amnesia NYFW. *instagram.com*.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s://www.instagram.com/p/B2X2N2TnhaC/?img\\_index=1](https://www.instagram.com/p/B2X2N2TnhaC/?img_index=1)
- Madelinesmodelling\_. (2020, October 8). Maddy the model. *instagram.com*.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s://www.instagram.com/p/CGEC3yhFieh/?img\\_index=1](https://www.instagram.com/p/CGEC3yhFieh/?img_index=1)
- Madelinesmodelling\_. (2022a, August 6). Madeline Stuart at NYFW. *instagram.com*.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s://www.instagram.com/p/Cg5ikMwtIwJ/?img\\_index=1](https://www.instagram.com/p/Cg5ikMwtIwJ/?img_index=1)
- Madelinesmodelling\_. (2022b, October 17). Skin care for ad. *instagram.com*. Retrieved January 20, 2023, from [https://www.instagram.com/reel/CjyPhyqhQWO/?img\\_index=1](https://www.instagram.com/reel/CjyPhyqhQWO/?img_index=1)
- Madelinesmodelling\_. (2023, January 27). #beyourownboss. *instagram.com*. Retrieved March 6, 2023, from <https://www.instagram.com/p/Cn5KVHRB9of/?igshid=ZjUwM2YwMzA3MA%3D%3D>
- Molvar, K. (2021). *The new beauty: A modern look at beauty, culture, and fashion*. Berlin: Gestalten.
- Oliver, M. (1984). The politics of disability. *Critical Social Policy, 4*(11), 21-32. doi:10.1177/026101838400401103
- Park, J., & Ha, J. (2015). A study on female image of the third wave feminism in fashion photograph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7*(1), 33-41. doi:10.5805/SFTI.2015.17.1.33
- Phelps, N. (2021, September 9). Moschino: Spring 2022 RTW. *vogue.com*. Retrieved March 20,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2-ready-to-wear/moschino/slideshow/collection#25>
- Turner, D. (2013, May 30). Essay: Prosthetics. *showstudio.com*. Retrieved March 20, 2023, from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rosthetics/david\\_turner](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rosthetics/david_turner)
- UPLAS. (1976).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 London: The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 Vogue Italia. (2021, July 22). Inclusion revolution. *vogue.it*.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s://www.vogue.it/fo>

ografia/gallery/inclusion-revolution-zebedee-talents-david-p  
d-hyde

Weinstock, T. (2020, July 7). Ellie Goldstein, the breakout star of Gucci Beauty, on why we need to see more models with disabilities in campaigns. *vogue.in*.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s://www.vogue.in/beauty/content/ellie-goldstein-breakout-star-gucci-beauty-on-why-we-need-to-see-more-models-with-disabilities-in-campaigns>

Yang, Y. J. (2022). *SNS 시대의 패션 콘텐츠* [Fashion content in the age of SNS]. Seoul: Communicationbooks.

# **Inclusion of Disability in Fashion**

## **- Case Analysis of Down Syndrome Model Madeline Stuar -**

**Chung, Soojin · Yim, Eunhyuk<sup>+</sup>**

Adjunc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Baewha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clusion of disabilities whose importance has recently been recognized along with diversity issues in the fashion industry. Drawing on theoretical researches on disability studies, we analyzed the recent movement for changes in perception of disability in Instagram followed by the inclusion of the disabled in the fashion industry. As for the research method, text mining along with Instagram archive and related article analyses was performed combined with literature research. In this study, the case of Madeleine Stewart, the first Down syndrome model, was intensively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deleine Stewart shared hashtags such as 'diversity' and 'inclusion', which mean acceptance of disabilities, through her Instagram account to promot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Madeleine Stewart shared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Down syndrome and becoming a fashion model through appearance management in an effort to deliver hopeful messages not only to the disabled but also to the general public without disabilities; Third, Madeleine Stewart was highly recognized not only in fashion but also in society as a whole and Stuart exerted her influence as an activist and influencer representing those with Down syndrome. This research analyzed Down syndrome model Madeleine Stewart's efforts to improve awareness on disability, which began in 2015 through Instagram, to help understand the development and flow of movements to embrace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fashion and social media.

Key words : disability, diversity, inclusion, down syndrome model, Madeleine Stewart

